

통일 칼럼

북한의 핵잠수함 공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서 열린 대규모 신년 경축행사에 참석했다. 공개 연설도 했지만 별도의 대남, 대미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다. 연말에는 각종 군사 현장을 현지 지도하며 올해 9차 당대회를 앞두고 무력 과시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현재 건조 중인 핵잠수함의 전체 외형을 최초로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그렇다면 핵심 부품이자 건조의 최대 난제인 소형 원자로는 확보했는지 궁금하다.

세계를 앞둔 지난해 연말 김 위원장은, 군사 행보를 쏟아내듯 공개하며 핵무력을 무한대로 강화할 거라고 공언했다.

크리스마스에 맞춰 핵추진 잠수함의 건조 현장을 찾은 데 이어, 신형 장거리 대공미사일 시험발사 참관, 미사일 및 포탄 생산공장 시찰,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 지도와 초대형 방사포 공장 시찰 모습을 잇달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의 군사 행보 중 가장 두드러진 점은 북한이 8천7백 톤급이라고 주장하며 건조 중인 핵잠수함의 전체 형상을 처음으로 공개한 것



정복규
논설위원

이다. 북한이 공개한 핵잠수함을 보면, 옆면에는 음파탐지 체계인 소나가, 앞쪽에는 6개의 어뢰 발사관이 보인다. 위쪽에는 총 10기의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발사관 덮개가 있다.

눈에 띄는 부분은, 거대하고 긴 함교로, 이는 전세계 잠수함 건조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형태다. 함교가 선체 길이의 절반에 육박하는 모양을 띠고 있는데, 과거 무리하게 미사일 발사관을 구겨 넣었던 북한의 김군옥영용함을 연상케 한다.

북한 해군은 로미오급 잠수함도 건조를 했다. 그다음에 로미오급 잠

수함을 모태로 해서 지난 2023년에 공개했던 김군옥영용함, 전술핵공격 잠수함이다.

제대식 잠수함인데 여기에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CM(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이다. 그래서 SSB(탄도미사일 잠수함)라 불리는 데 이런 설계, 건조 능력을 고려했을 때 비슷한 신형 형태의 설계구조로 건조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러시아 등 군사강국들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을 함교가 아닌 선체의 전용 미사일 구획에 배치하는 구조로 설계하고 있다. SLBM 길이가 상대적으로 긴 데, 잠수함 선체를 크게 키우는 기술력

을 갖추지 못한 북한이, 함교를 기형적으로 키워 미사일을 배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외형이 모두 결합되고 도색까지 이뤄진 점을 보면 잠수함 내에 핵연료를 동력으로 쓸 소형 원자로가 이미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이 최대 난제로 여겨지는 소형 원자로 확보에 성공했다면 우리보다 훨씬 먼저 핵잠수함의 전력화가 가능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의 신형 핵잠수함이 비록 기형적이긴 하지만, 완성도나 전략적 위협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북한, 핵잠수함 공개에 이어 저고도로 요격을 피해 정밀 타격이 가능한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을 공개한 것도 또 다른 북한의 핵 위협이다.

특히 이번 미사일 발사를 시험이 아닌 '훈련'이라고 밝혀 이미 실전 배치된 상태로 추정된다.

새로운 핵 전략무기와 제대식 무기들을 두루 보여주는 군사 행보는, 곧 있을 당 대회를 앞두고 군사적 능력과 성과를 대거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기자수첩

군산지역 한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군산·김제·부안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신영대 국회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신영대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는 군산지역 정치의 또 하나의 암울한 사건으로 남게 됐다.

공직선거법 265조는 선거 사무장이 선거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로 하도록 정한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장 출신 강모씨등 3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합계 재판에 넘겨진 신 전 의원의 보좌관에게는 징역 1년 4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강씨는 제22대 총선(2024년 4월10일)을 앞둔 2023년 12월쯤 군산시장에인 체육회 전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현금 1500만원과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제공하고,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

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성별·연령 등을 거칠고 응답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전 의원은 당시 김의겸 전 의원의 경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공천을 받았다.

이제는 휴대전화를 차명으로 개설해 일반 유권자인 것처럼 여론조사기관 전화를 받고 '신 의원을 지지한다'고 여러 차례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신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김의겸 전 의원과 맞붙어 1%포인트 내 근소한 차이로 2024년 3월 공천을 받았다.

법원은 신 전 의원이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이들의 범행에 동조했다고 봤다. 신 전 의원이 거짓 응답을 유도하는 내용의 논의가 오간 채팅방에 참여하고 있었던 점, 그의 지위나 장악력을 고려하면 이들의 범행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보면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이로써 군산 국회의원은 공석이 됐으며 충분히 예견된 일인데도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했던 민주당 정치권의



김만호
지방부
군산주재

책임 역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체포동의안 상정부터 대법원의 보좌관 확정 판결까지 이 모든 일들에 이르지 않고 이들에게 쫓겨갔던 지방정치인들 역시 지금은 누군가 이 부끄러운 현실에 사과에 표현조차 없이 그저 대법원의 민주당 의원 탄압이라는 또다른 이슈로 접근하는 모습에 안타깝고 국민과 도민 그리고 지역구 군산시민 모두를 우롱하는 모습으로 비쳐지는 모습은 또 하나의 상처로 남겨지게 될 것이다.

전북정치의 큰 그림인 도지사의 입장표명 역시 한쪽 면만을 이야기 하는 모습에 정치인의 또다른 면을 보는 것

같이 큰 실망감을 주는 담화의 내용이 없었나 하는 생각마저 든다.

먼저 같은 민주당 소속이기에 유감 표명이나 도당 차원에서 사과해야 했다. 지금 이순간 가장 불편한 부분은 보좌관의 행동이라 치부 하며 본인은 "몰랐다" 하는 신 전 의원 본인의 마음일 것이나, 그와 더불어 그를 지지했던 군산시민의 마음 역시 큰 실망과 허탈함으로 남겨지게 되는 것 역시 부정할수 없을 것이기에 시민국에 미안한 마음으로 진정할 사과가 있었다면 신 의원 본인의 7일 기자회견처럼 백의종군하는 것이 아름답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 솔깃수 없다.

이에 따라 군산에서는 국회의원 재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이에 맞춰 지역 정가도 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관측된다. 벌써부터 재선거에 누가 나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에서는 이번 당선 무효 결정은 개인의 의원직 상실을 넘어 군산 정치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잠음이 가득한 군산지역 모든 정치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변화와 새로운 도약에 발판을 마련할수 있는 인제가 선출됐으면 한다.

사설

한국 수출 세계 6번째

올해 한국 수출이 사상 최초로 7천억달러를 돌파했다. 산업통상부·관세청에 따르면 2025년 연간 누적 수출액 7천억달러를 달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한국의 연간 수출 규모는 1995년 1천억달러, 2004년 2천억달러, 2006년 3천억달러, 2008년 4천억달러, 2011년 5천억달러, 2018년 6천억달러를 각각 넘기며 빠르게 증가했다.

수출 7천억달러는 2018년 6천억달러 달성 이후 7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한국은 미국(2000년), 독일(2003년), 중국(2005년), 일본(2007년), 네덜란드(2018년)에 이어 수출 7천억달러를 돌파한 세계 6번째 나라가 됐다.

특히 수출 6천억달러는 세계에서 7번째로 달성했으나 7천억달러는 6번째로 달성하며 우리 수출이 글로벌 주요국 대비 빠르게 성장하

고 있음을 증명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첫 수출에 나선 이래 77년 만에 달성했다. 올해 초만 해도 미국발 관세 충격과 보호무역 확산 등 어려운 통상 환경으로 인해 고전할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로 상반기 수출이 감소했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시장 신뢰가 회복되고 대미 관세 협상 타결 등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반도체를 필두로 자동차, 선박, 바이오 등 주력 산업의 굳건한 강세가 지속된 가운데 한류와 산업이 선순환을 이루며 식품, 화장품 등이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는 등 수출 산업 다변화를 이뤄냈다.

수출 지역도 미국과 중국의 비중이 감소하고, 아세안·유럽연합(EU)·중남미가 증가하는 등 시장 다변화 추세를 보였다.

성우 송도순 별세

성우 송도순씨가 별세했다. 고인은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0시께 서울 건국대병원에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77세다. 1949년 황해도에서 태어난 고인은 중앙대학교를 거쳐 중앙대 연극영화학과를 중퇴했다.

대학생 시절이었던 1967년 동양방송(TBC) 성우 3기로 입사했다. 1980년 언론 통제할 후 KBS에서 성우로 활동했다. 산다는 것, '사랑하니까', '달수 시리즈', '간이역' 등 드라마에도 출연했다. '싱글벙글쇼', '저녁의 희망가요', '명랑콩트' 등의 진행을 맡기도 했다.

고인은 MBC에서 방영했던 애니메이션 '툼과 제리'의 해설을 맡아 독특한 목소리톤으로 이름을 알렸다. TBS 개국 후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성우 배한성과 함께

가는 저녁길'을 진행했으며 '목소리 아줌마'라는 별명을 얻었다.

고인은 2015년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를 맡았다. 배한성, 양지운 등과 함께 스포셜스피치아카데미를 개설해 원장으로 일했다. 1975년 대한민국 방송대상 라디오부문 대상, 2020년 보관문화훈장을 받았다.

유족은 남편과 두 아들, 두 딸, 리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실에あり, 발인 3일 오전 6시20분이다.

고인은 성우이자 방송인으로 오랜 시간 활동하며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메디컬 헬스케어 전문기업 솔고바이오메디칼은 지난 2018년 국내 및 미국 헬스케어 대리점과 흡소광 사업의 홍보를 위해 방송인 송도순씨를 헬스케어 모델로 발탁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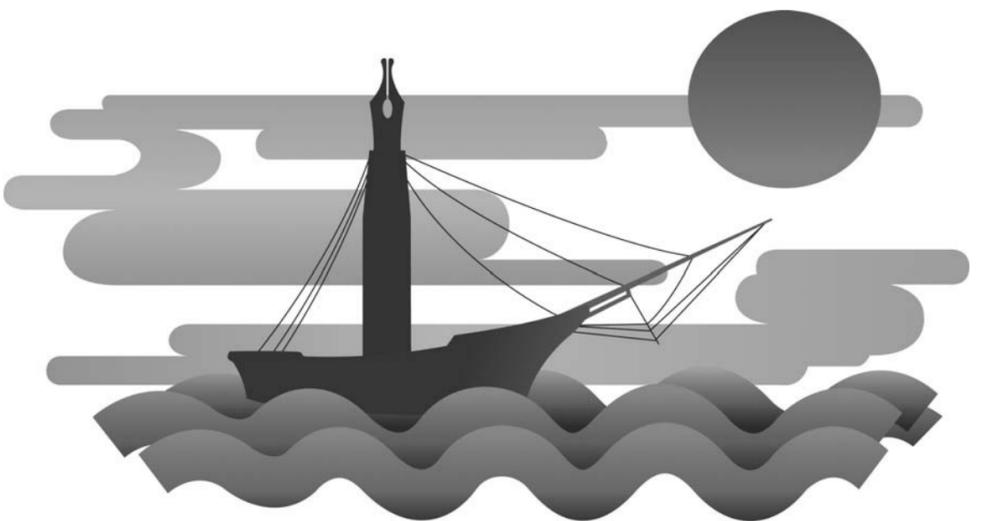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송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